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30>

대승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란 법문이 있다. 이 '불성'에 관한 훌륭한 설명이 <여래장경(如來藏經)>에 실려 있다. 거기에는 번뇌가 꿀벌(蜜蜂), 불성은 꿀(蜜)에 비유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꿀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꿀벌을 내쫓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꿀벌을 죽여 버려서는 다음번에 꿀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꿀벌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꿀(불성)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예기는 실로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 인간의 번뇌를 경제활동, 꿀을 신앙심이라고 해보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 격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 과정에서 좀처럼 마음의 안식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활동을 쉬면서 기구나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부쳐가 되기 위한 실천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보시행은 밀천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번뇌의 세계로 되돌아가 경쟁속의 경제활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경쟁이란 무엇인가?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기업과 가계를 생각해볼까. 우선 기업의 바람직한 경쟁은 소비자의 행복에 얼마 만큼 봉사하는가에 초점을 둔 경쟁 개념이다.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동일종 내에서 타사에 지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 경쟁은 기술(품질)경쟁이어야지 단순한 가격 경쟁이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제철' 회사가 자본의 힘을 앞세

워 '라면' 업계에 뛰어들어 시장가격 보다 찬 값의 라면을 만들어 시장 지배력(share)을 형성하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가계(家計)에 대해서는 전심으로 개미처럼 힘쓰고 꿀벌처럼 애써야 한다. 헛되이 남의 힘을 믿고 그 배품을 바라서는 안된다."

이것은 불교성전인 <육방예경(六方禮經)>에 쓰여 있는 말이다. 이 경(經)에는 가계(家計)로 인간이 독립하여 사는 기본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인간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이 탄탄한 경제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설파되고 있다.

가계는 노동의 대가를 기초로 해 그것을 사려 깊게 소비함으로써 개인 및 각 가정생활에 독자적 색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가계의 모습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결정 지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구경>에는 "애써 힘쓰고 노동하여 얻은 부(富)는 자기의 성과품이라 생각하여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만 소비해서는 안된다. 그 얼마쯤은 남을 위해 이것을 나누고, 또 얼마쯤은 비축해 두고서 불시의 용도에 대비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경제개발이 진전되는 동안 '스스로의 생활도 아직 충족하지 못해 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을 위해 나눈다'든지 '사회기부' 행위보다는 자기만의 축재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태도를 취해왔다. 물론 불교에서도 생활의 간소화와 집소(質素)를 중요시한다. 절제와 검약이란 다른 모든 미덕을 포용하는 최상의 경제적 가치이다. 마치 경양과

절제 · 검약 모든 미덕 포용하는 경제적 가치

자기가 얻은 '부'는 모두 자기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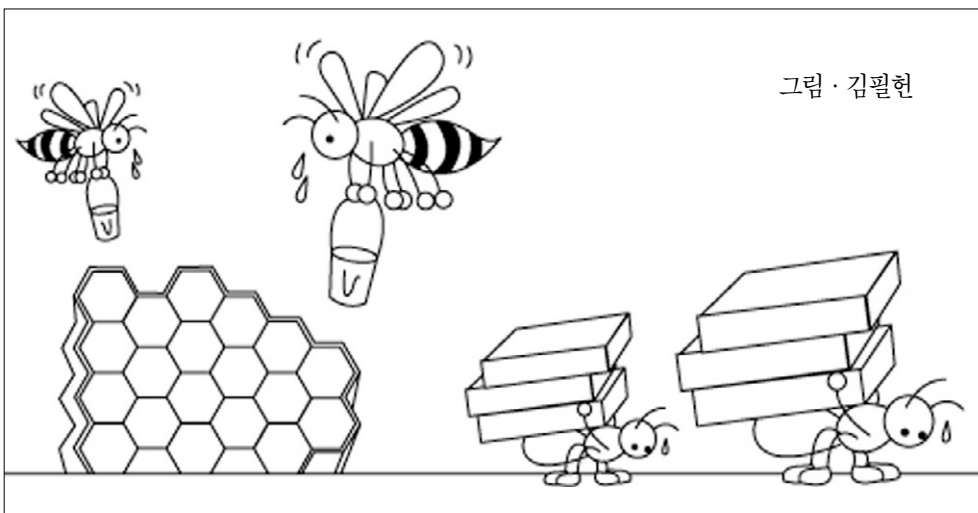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하심(下心)이 모든 도덕을 앞지르는 최상의 윤리적 가치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야기고 절약함이 지나치면 인색하고 그러한 정도가 심해지면 도리어 바른 도리를 해치고 만다.

불교에서는 특히 나눔의 행위 즉, '보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보시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돈 한 푼, 꽃 한 송이라도 나누는 것을 권하고 있다. 나눠 줄 것이 정녕 없다 할지라도 '무재(無財)의 칠시(七施)'라 하여 웃는 얼굴이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로 삼고 있다.

석존은 오늘날 생활세계의 잣대라고 할 재(財)의 4분법을 설파했는데, 노동으로 얻은 부(수입)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눌 것을 권하고 있다.

- (1) 가계비(개인 및 가정의 소비)
- (2) 사회적 지출(세금이나 보시)
- (3) 기업 등의운전자금
- (4) 저축(불의의 재해에 대비함)

불교의 인생관으로서 보시와 함께 경제생활에 관해 저축을 중시한 점도 특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시대의 수모와 6.25한국전쟁 등 뼈아픈 고통을 겪고 '보릿고개'의 절대 빈곤을 실감하면서 경제적 행복이야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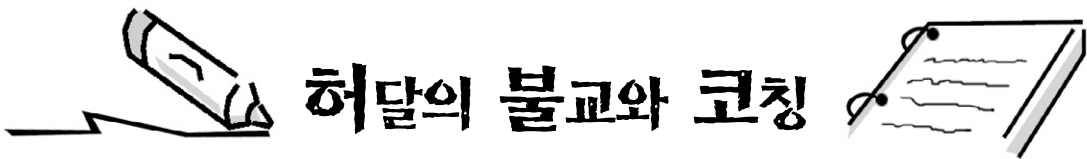
로 인생의 행복이며, 그것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일밖에 없다고 믿고 나서, 만모니즘에 빠져 격렬하게 살고 있다. 가계는 부동산 투기 등 갖가지 돈벌이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 축재에만 몰입해 왔다. 그 이면에는 소비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근대경제학의 사고가 있어서, 국민 총지출의 크기가 국민경제의 성장을 통한 행복의 척도라는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맞벌이 취업이 증가해 아이들은 열쇠지기가 되고 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우리나라 가계는 풍요로워진 것만 아니냐 가정의 실태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생각지 않은 가정파괴 등 불행행 초래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불교경제학의 입장에서 한국 가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불교경전에서 설하듯이, '얻은 부(富)는 모두 자기 것으로만 생각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비해서는 안된다'는 법문 속에서 오늘날 가계운영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한국도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평균 연령이 80세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생은 길게 봐야 겨우 백년이요, 그 백년은 긴 것 같지만 역시 찰나(刹那)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삶을 누리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것도 일하는 것겠지만, 한 평생도 결국 찰나임을 깨닫고 보람된 삶의 정진에 힘쓰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인종대 경제학과 교수

③0 각주구검



허달의 불교와 코칭

2003년, 새로 맡게 된 회사의 일로 연말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새해를 맞았을 때의 일이다. 습관화된 대로, 한 해를 돌아보고 책상 앞에 앉았다가 손웃음처럼 '각주구검(刻舟求劍)', 그 날의 글 제목이 떠올랐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어서, 그 동안에 나는 4년간의 징검다리 사장 노릇을 끝으로 경영직에서 은퇴하였고, 그 후 코칭 공부에 전념하여 전문코치가 되었다. 이미 장가 들었던 큰 아들에 딸 둘마저 시집 보내 혼사를 다 끝냈으며, 2006년 손자가 하나에서 둘로 불어났고, 2005년에 태어난 외손녀가 하나, 다음 달이면 외손자가 하나 또 태어날 차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에 썼던 글을 찾아 감신년을 기축년으로, 을유년을 경인년으로 바꿔놓으니, 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 변한 것은 겉모양일 뿐, 마음 공부에는 아직 큰 진전이 없었다는 부끄러운 말씀이다.

나뭇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열빠진 무사 하나가 졸다가 손에 들었던 자신의 검(劍)을 강물 속에 빠뜨렸다. 빠진 자리를 표시해 놓아 나중에 그 검을 찾을 육신으로 주머니 칼로 뱃전에 표시를 해놓았다는 중국의 고사(故事)를 일러 '각주구검(刻舟求劍)'

이라 한다. 기축년(己丑年) 지나니 경인년(庚寅年) 아니냐고, 흐르는 세월의 뱃전에 주머니 칼로 금(線) 하나 그어놓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본답시고 책상머리에 앉은 내 꼴이 이 무사와 진 배 없다는 탄식이다.

불학(佛學)에 '심(心)의 찰나(刹那)'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Thought-moment'라 한다는데, 본디 무상(無常)한 일체의 존재는 매 찰나마다 생주이멸(生住異滅)을 거듭한다는 뜻이니, 존재라 이름하는 바 환(幻)의 공경과 이어짐을 설명한 것이다. 오래 전에 읽은 영어 불교입문서에는 '매 찰나 그대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Every moment you die and reborn)' 라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다. 누군가의 해설을 빌리면 활동사진이 1초에 25장 화면(Frame)이 돌아감으로써 관객에게는 마치 연속하여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단속(斷續)이 증생에게는 연속하여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착시 현상에 준한다는 것이다. 단속(斷續)하는 환(幻)의 찰나 그 화면 사이에 금을 긋는다면 아마도 그 금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진공일 것이다. 이로써 일순 온갖 환이 사라질 것이다.

금 구기려면 뱃전에 어설픈 칼자국을 낼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이런 금 구기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손지우손(頰之又頰), '떨어 내자 떨어내자' 일으로는 6년을 별렀건만, 구두선(口頭禪)의 결과는 역시 별무신통이다.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위에 금 하나 긋고 돌아보면 저 금과 이 금 사이에서 아직도 두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

구차스러운 안도(安堵) 몇 가지, 그리고 아직도 착(着)을 내려 놓지 못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석념(情念)이다. 허구로 만들어놓은 대차대조표에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무의미한 덧셈과 뺄셈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나선(螺旋) 운동의 아름다움은 한 바퀴 휘돌아와서 자신이 떠난 자리를 내려다 보는 데 있다고 한다. 한 해를 더 살고 되돌아와 경인년과 신묘년(辛卯年) 사이에 다시 뜻있는 금 하나 그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니 그것이 언제 오든, 마침내 삶과 죽음 그 '심(心)의 찰나' 프레임 사이에 금 하나 그을 때, 오늘 떠난 이 자리를 넘겨받은 마음으로 내려다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각주구검' 표지 밑 거기, 시공(時空)의 강물 속에 제아무리 자맥질한다 해도, 마침내 잃어버린 검을 되찾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이론 지체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보란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정의를 코칭 워크숍 어느 곳에선가 인용했던 기억이 난다. 간다는 사랑을 과도하게 먹는 버릇 때문에 병든 아이를 고쳐 주기 위해, 먼저 2주씩이나 걸려 자신의 사랑 먹는 습관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아이를 불러 가르침을 주었다던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금 하나 그어 다시 시작하자. 주머니 칼로 뱃전에 그은 열빠진 표지(標記)가 되든, 보리(菩提)를 찾아 떠나는 발심의 출발선이 되든, 다 마음먹기 하나에 달린 것 아니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

진국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천기비법

庚寅年 庚寅年 庚寅年

백초소법

베스트 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장짜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④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⑥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百超律歷學堂